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충북 문화다양성 Lab 리서치북





목차

| | |
|--|------------|
|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 007 |
| -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소개 | |
| - 문화다양성 소개 | |
| - 사업 추진 현황 | |
| 2.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 충북 문화다양성 Lab 추진 | 011 |
| - 문화다양성 Lab 추진 및 연구보고서 | |
| - 문화다양성 Lab 연구 활동 | |
| 3. 문화다양성 관련 부록 | 047 |
| - 충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조례 | |
|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 |

01



2022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 오색빛깔 조약돌

01.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 오색빛깔 조약돌

1-1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 오색빛깔 조약돌 소개

- 2017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도민 모두에게 문화적 표현 자유 및 존중, 문화적 관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2022년 올해 문화다양성확산사업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 오색빛깔 조약돌은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오색빛깔의 조약돌이 웅기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모티브로, 작은 조약돌이 어우러져 모일 때 함께 빛나는 오색빛깔의 아름다움, 즉 문화다양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충북문화재단 사업명입니다.

1-2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 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

1-3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대상 : 충북도민
- 사업내용

| 구분 | 프로그램명 | 추진목적 | 유형(대분류) | 유형(소분류) |
|----|-------------------|---|----------|---------------|
| 1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 문화다양성 주간 내 도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증진 도모 및 가치확산 | 홍보 및 캠페인 | 캠페인, 콘텐츠제작 |
| 2 | 조약돌 네트워크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 네트워크 구축 | 정책활동 | 협의회 라운드테이블 |
| 3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School | 문화다양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교육 | 교육 |
| 4 | 문화다양성 Lab | 도내 다양한 축제·관광 홍보물 대상 문화다양성 기준 설정 및 평가 연구 | 조사연구 | 연구모임 |
| 5 | 충북 문화다양성 주간 및 포럼 | 한해 도내 문화다양성 현황 공유 및 향후 방향성 논의 기회 마련 | 행사 | 포럼 |

02



2022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 충북 문화다양성 Lab

02.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추진 현황

2-1 문화다양성 Lab 추진

1) 추진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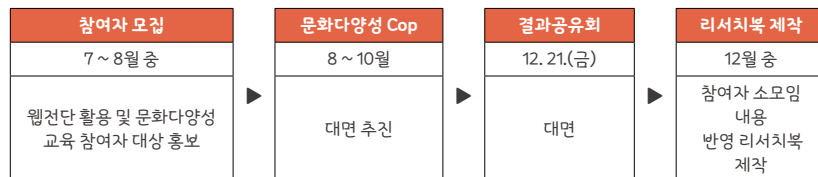
- 도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관광·행사 등 홍보 콘텐츠 구성요소 내 문화다양성 감수성 여부 및 표현 다양성 관련 논의의 장 마련
- 일반 도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다양성 관점 함양 및 실질적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 기회 제공
- 올해 소규모 도민주도형 문화다양성 랩 운영을 통한 향후 단계적 프로그램 확대 추진

2) 추진개요

- 프로그램명 :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충북 문화다양성 Lab’
- 추진기간 : 2022. 7 ~ 11월
- 추진장소 : 재단 대회의실 및 가람신작 등
- 추진대상 : 충북 도민 5명 내외
- 추진방식 : 온·오프라인 혼용
- 주요내용 : 도민 주도형 일상 속 문화다양성 감수성 사례 및 대안 방안 연구 논의

3) 세부내용

◇ 추진일정



◇ 참여자 구성

| 구분 | 멘토 | 멘티 | 비고 |
|----|-----|--------------------------------------|----------|
| | 이름 | 이력 | |
| 참여 | 최종운 | - 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 인권교육연구소 평권 대표 | 전성희 / 청주 |
| | | | 김성희 / 충주 |
| | | | 안치섭 / 청주 |
| | | | 김준아 / 증평 |
| | | | 윤선화 / 청주 |

◇ 세부내용

| 추진일정 | 구분 | 주요내용 |
|------------------|----------|---|
| 8. 19(금) 14:00 | 오리엔테이션 | 문화다양성 Lab 안내 멘토·멘티 소개 및 인사 문화다양성 및 언어감수성 관련 강의 추진 |
| 9. 2.(금) 14:00 | Cop 운영 1 | 문화다양성 훼손된 홍보콘텐츠 사례 공유 및 토론 |
| 9. 16.(금) 14:00 | Cop 운영 2 | 멘티의 홍보콘텐츠 사례 검색 및 공유 관련 문화다양성 훼손 사례에 대한 대안 논의 1 |
| 9. 30.(금) 14:00 | Cop 운영 3 | 멘티의 홍보콘텐츠 사례 검색 및 공유 관련 문화다양성 훼손 사례에 대한 대안 논의 2 |
| 10. 7(금) 14:00 | Cop 운영 4 | 멘티의 홍보콘텐츠 사례 검색 및 공유 관련 문화다양성 훼손 사례에 대한 대안 논의 3 |
| 10. 14.(금) 14:00 | Cop 운영 4 | 멘티의 홍보콘텐츠 사례 검색 및 공유 관련 문화다양성 훼손 사례에 대한 대안 논의 4 |
| 10. 21.(금) 14:00 | 결과공유회 | 멘토 및 멘티 문화다양성 훼손 사례 및 연구 결과 공유회 추진 |
| 12월 | 리서치북 제작 | 멘토-멘티 연구성과를 담은 리서치북 제작 |

2-1 문화다양성 Lab 추진

가) 오리엔테이션

- 일 시 : 2022. 8. 19.(금) 14:00
- 장 소 : 대성비디오
- 참여인원 : 6명(멘토 1, 멘티 5)
- 주요내용 : 문화다양성과 소수문화

| 구분 | 내용 |
|--------------|--|
| 오리엔테이션 추진 | 1) 문화다양성 Lab 소개 및 참여자 인사 - 사업 취지 및 일정 안내 - 사업 향후 일정 및 추진 방식 안내 - 재단 담당자 및 멘토, 멘티 자기 소개 2) 문화다양성 강의 추진 - 주제 : 문화다양성 및 언어감수성 중심으로 - 문화다양성의 정의 및 숨차(숨어있는 차별) 애니를 가지고 언어적 차별을 언어 감수성 입장에서 토론 3) 세부사항 논의 - 도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관광행사 등 홍보 콘텐츠 구성요소 내 문화다양성 감 수성 여부 및 표현 다양성 관련 논의 - 문화다양성 관점 함양 및 실질적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 - 문화다양성 훼손된 홍보콘텐츠 사례 공유 및 토론 |
| 토론 주제 | - 문화다양성의 개념 -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의 인권 - '소수자'는 필요한 개념인가?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문화다양성의 범주 |
| 실천 방향 논의 | - 내 주변 소수자의 삶에 관심 기울이기 - 우리 사회에는, 내 옆에는 '누구나' 있다. - 다양성 만화제작소 '숨(은)차(별)' 웹툰 보기 |
| 연구과제주제 |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의 홍보물 확인하기 |

연구과제

김성희 “소수자라는 단어는 특별하게 느껴져서 언짢게 들린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문화 다양성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정신적 문화 다양성'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전성희 <숨차애니>
회사내 일상에서 다양한 문제 제시
-제1화 스텝무역-
방글라데시 아밀의 입사와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회식
돼지갈비 전문
직원들 : 아밀의 입사와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사장님 : 쏘잔하게 콜라가 뭐야! 쏘맥이 아니면 건배하지마!!
A콜라남 : ...
B남 : 한 잔 받으세요.
C남 : 돼지 열병 걸린 건 아니겠지?

D여 : 며느리가 좋아야??
E여 : 애가 기다리는데...
방글라데시 아밀 : 난 무슬림이라고 HELP ME
-제2화 애인 있어요.- 요약
주찬양대리(B남)에게 사장님이 조카를 소개를 시켜주었다.
조카는 훌쩍 반했다는데 주대리는 어렵다고 한다.
사장님은 '나중에 판소리 하지마라'하며 속으로 베틀다.
조카는 주대리에게 '내사랑'하며 카톡을 보낸다
아침씨(A콜라남)는 판나라 일보를 보며 '에이즈나 걸리고 자식도 못 낳는데!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음란마귀들이!!!!'라고 하기도 하며 주대리에게 '사장님 일가가 얼마나 뽕뽕한지 모르지? 그냥 만나봐.
내가 기도해 줄게.' 한다.
- 제4화 냉장고는 있어?-
D여 : 이번 상품을 생필품이 잘 빠졌네요. 원단 느낌도 좋고~
방글라데시 아밀 : 그러네요. 이런 스타일의 블라우스는 제 여친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D여 : 오~ 여친있어요?
방글라데시 아밀 : 아노, 한국사람이에요. 대학에서 만났어요.
D여 : ...
직원 : 어 샘폴이네. 방글라데시 공장에 보낼 건가?
C남 : 아밀씨, 근데 방글라데시에도 DHL이 가나?
방글라데시 아밀 : 네?
C남 : 거기 엄청 가난하던데.
방글라데시 아밀 : 가난해도 DHL은 가요.
C남 : 거기 TV, 냉장고 이런 거 다 있나?
방글라데시 아밀 : 예... 거의 다 있지요... 아주 가난하면 없을수도...
C남 : 그럼 자동차도 있나?
D여 : 정말 유치하네.
C남 : ...
D여 : 아! 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C남 : 왜? 그냥 아밀 대단하다고~
D여 : 아밀씨 미안해요. 대신 사과할게요.
방글라데시 아밀 : 괜찮아요~ 더한 일도 많아요
-제6화 너무 이기적이야-
E여는 장애인 채누리의 엄마였다.
고속버스가 끼익~ 앞에 와서 선다
E여 : 지방 출장은 힘들어. 자기도 지하철로 갈 거지?
D여 : 네, 지하철로 가요.
D여 : 어?
D여 : 전동 휠체어가 차에 바로 실리네요?
E여 : 드디어!
D여 : 공간을 많이 차지할 텐데, 저 사람 차비를 더 내는 것도 아니겠조?
E여는 D여 말에 당황한다
D여 : ...
E여 : (속으로 중얼거린다)이기적... 이기적.....
D여 :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네.
D여 : 저 무릎이 안 좋아서 걸어서 못 내려가요.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가요.
D여 : 엘리베이터로 쉽게 내려가니 편하고 좋네요^^
E여 : 지영씨는 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해서 설치된 지 알아? 장애인들이 죽자사자 싸워서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지. 덕분에 우리도 엘리베이터를 타네~
E여가 출장에서 돌아와 어린이집으로 간다.

E여 : 채누리!!
 휠체어를 탄 채누리 어린이 : 엄마!!
 -제7화 내 선택은 없어!!!
 E여 : 지영씨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D여 : 이제 한 3년 되어가죠.
 E여 : 그럼 이제 슬슬 2세 계획 이야기도 나오겠네?
 C남 : 슬슬이 아니라 늦은 거죠~
 D여 : 휴~~~
 E여 : 아니... 점점 부모님들이 잔소리 더 하시겠다고.
 D여 : 안 그래도 시댁이나 친정이나 압박이 심하죠. 웃음으로 넘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
 사장님 : 무슨 이야기들 하는데 지영씨 얼굴이 축상이야?
 D여 : 아... 아니예요. 사장님.
 C남 : 아, 지영씨 애 낳을 때 되었다고요~
 사장님 : 아, 지영씨 2세 계획 있어?
 D여 : 아... 아뇨,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사장님 : 그애, 우리 지영씨처럼 유능한 여직원은 애 안 낳아도 돼. 나처럼 자기하고 싶은 것 다 펼치라고.
 그럼~ 수고.
 직원들 : 사장님 눈빛 변하는 거 봤어? 원래 여직원 안 뽑으려고 했다가. 몇 년 전에도 출산휴가 냈던 직원은 그대로 퇴직했잖아.
 퇴근후
 D여 : 알았어요, 엄마, 그 소린 그만해요. 전화 끊을게요.
 D남편 : 아휴~ 요즘 엄마 잔소리 너무 심하네. 지겹지도 않으신가? ㅎㅎ
 D여 : 왜 또 나보고 애 낳으라고 성화써?
 D남편 : 자기 마음대로 해. 난 큰 상관없어~
 D여 : 근데 애 낳으면 누가 키울 건데? 자기가 육아휴직 낼 거야?
 D남편 : 1차 적인 건 당신이 해줘야지.
 D여 : 왜 이래? 원래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선택하는 건 하나도 없어!
 -제9화 직장생활 마침표 찍고 싶어?
 봉~
 (사원=C남)
 사원 : 어제 밤에 먹은 야식이 문제였나? 속이 안 좋네.
 아, 사장님 카플만 아니면 화장실에 갔다가 출근해도 늦지 않는데...
 사장님 나와 계셨어요?
 사장님 :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어휴, 다들 카플하면 얼마나 좋아, 유튜브도 출이고, 시간도 절약되고,
 사원 : ...
 출근 후 사무실 안
 사원 : 사장님 어제 퇴근하실 때 말씀하신 방글라데시 공장과 업무협약안이요.
 사장님 : 어, 그래? 거 봐, 아침까지 할 수 있다가니까.
 음, 협약내용은 이 정도면 됐고...,
 어머니!!! 이게 뭐야???
 글자크기도 어정쩡하고, 문장 끝맺을 때 마침표는 왜 항상 빼먹는 거야? 핫산 회장이 날 뭘로 알겠어?
 지나가는 고등학생을 시켜도 이거보단 낫겠다.
 사원 : 에휴~ 마침표는 초딩들도 찾아내겠지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 : 왜 그러고 서 있어?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그까짓 마침표라고 우습게 아는 거야?
 사원 : 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사장님 : 에이~ 커피가 다 식었어.
 방글라데시 아밀 : 어제 늦게까지 야근하셨다던데 그런 걸로 너무 하시네.
 사원 : 아밀, 나 바람 좀 쏘고 올게.

마음 같아서는 한 판 볼고 오늘로 마침표 찍고 싶다. 진짜! 아~~~오!!
 -제 10화 라마단
 A콜라남 : 점심시간인데 오늘은 뭘 먹어야 하나... 요 앞에 새로 생긴 집 가 볼까나? 갈비탕 콜?
 E여 : 그 집 괜찮아 보이던데... 소고기니까 아밀 씨 드실 수 있지요?
 아밀 : 네. 그런데 저 점심 못 먹어요.
 C남 : 왜? 밥맛이 없어? 여자 친구랑 싸웠어? 기운이 하나도 없네.
 E여 : 어머 그러고 보니 아밀씨 안색이 안 좋아요.
 방글라데시 아밀 : 아, 아니예요.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서 금식하거든요. 일하는 게 조금 힘드네요.
 D여 : 아, 맞다. 제 친구 중에 무슬림이 있는데 그 친구 말이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이 기간에 단축근무하고 그러더라고요.
 A콜라남 : 금식을 한다고? 에이~ 무슨 여기가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먹어야 살지. 먹어 먹어~ 아밀 씨 쓰러지길라고 해 봐, 그 뒷감당 누가 할 거야?
 D여 : 혈~
 D여는 씩씩 거린다.
 E여 : 아밀씨가 그래서 오늘 부쩍 말수도 줄고 그랬던 거군요. 들어오면서 아밀씨 든든히 마실 거라도 사올까요?
 방글라데시 아밀 : 아니예요.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C남 :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끼리 후딱 먹고 올게.
 A콜라남 : 낄낄...
 C남 : 어? 옆 사무실 형이다. 형, 같이 가.
 문을 확 닫는다.
 쿵! 문이 A콜라남의 얼굴을 친다.
 A콜라남 : 아앗!! 왕진지 이 시키 일부러 닫은 거지?
 E여 : 호호호~ 별 받으신 거예요.
 D여 : 킁킁~ 고거 샘통이네.

안치섭

문화다양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상호 토론
 - 만화를 보고 비어 있는 말풍선에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토론 → 정답은 없기 때문에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다.
 - 발표자와 토론자의 토론을 통해 언어 차별이 아직도 많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종교적 차별이 만화를 통해 장 드러나 있다.
 - 완전 한국 사람이네. - 방글라데시 사람에게 칭찬인가?
 - 소수와 다수는 민주 정치적 개념으로 경계가 모호하다.
 - 다양성은 존중받아야할 개념
 - 누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문화다양성 : 삶의 다양성
 - 문화다양성은 차별이 아닌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
 -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내 주위의 문제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서로에 대한 인정은 결국 사회구성원의 필요로움을 추구
 - 적극적인 강의 참여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연결됨

김준아

- 다양성이 필요한가?
 - 소수자와 다수의 구분이 필요한가?
 - 민주주의 다수결의 폐해?
 - 내 주변에는 어떤 소수자가 있는가?
 - 인간이란 공평함.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거기엔 다수결의 개념이 있다.
 하지만 소수의 배려라는 개념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소수를 배려하는가? 다수결은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드는 시간이었다. 인간은 모두 공평하고 소중하지만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내 주변에 소수자이면서 약자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윤선화

- 문화다양성은 자유로움이다. 다름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태도이다.
- 문화다양성 만화 '숨차'를 보면서 차별적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1화 - 술 마시지 않을 자유, 일방적 회식 금지
- 2화 - 사랑의 자유
- 3화 - 장애인 차별하는 발언 금지
- 4화 - 육아는 아내만의 몫이 아님



오리엔테이션 1



오리엔테이션 2

나) 2회 연구모임 Cop

- 일 시 : 2022. 9. 2.(금) 14:00
- 장 소 : 가람신작 2층
- 참여인원 : 6명(멘토 1, 멘티 5)
- 주요내용 : 문화다양성 관점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 홍보콘텐츠 모니터링

| 구분 | 내용 |
|----------|---|
| 토론 주제 | - 기존에 발표된 각종 홍보 콘텐츠 모니터링 - 홍보콘텐츠를 통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 개념 관련 토론 - 홍보콘텐츠를 통한 성 역할, 성별 표현에 대한 고정관념 관련 토론 - 홍보콘텐츠를 통한 일반화의 오류, 차별적 시선에 대한 경계 알아보기 |
| 실천 방향 논의 | - 내 주변 소수문화의 삶에 관심 기울이기 -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 |
| 연구과제주제 |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충북에서 발행된 각종 홍보물 모니터링해 오기 |

내 생각 작성해보기

- 김성희**
- ▷ 홍보물(포스터) 문구를 우리말로 좀 더 부드럽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다양성의 눈으로 고쳐쓰기)
 - ▷ 【광고 대상】 취소된 홍보물 살펴보고 토론
 - ↓
 - 지나친 표현의 문구 연구(재조명) 그림의 실수
 - ▷ 장애가 있는 아동복 광고 포스터 → 휠체어를 타고 광고를 찍은 사진 →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광고 홍보물 중요하다.
 - ▷ 남자가 물건을 모두 든 피임약 광고 → 다 말기더라도 피임까지 말기진 마세요 → 사랑은 똑같이 나누는 것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문구 바꾸기 개인 의견)
 - ▷ 다양한 가족에 관한 토론
 - ↓
 - 다가구, 1인 가족, 반려견(가족?) → 문화 다양성의 눈으로

- 전성희**
- 1. 제시된 포스터를 보고 토론
 - 1) 건강가정 캠페인 연합-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 아이가 건강한 마음, 문화가 있는 가족
-엄마, 아빠, 딸, 1아들 구성의 가족이 놀이 공원을 걷는 모습 속에 2아들(혹은 제3의 남자아이)가 풍선을 타고 나르는 장면
→흠잡을 것 없는 경쾌하고 아름다운 배경의 포스터이지만 자녀의 구성에서 여아는 하나 아들은 둘을 그렸다는 점은 남아선호 사상의 잔재가 무의식 속에 표현된 것이라고 보임
 - 2)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다양한 가족 형태 그림-청춘의 남녀, 젊은 부부와 아이 하나, 할머니와 손녀
 - 3)다양한 가족의 형태 그림-할아버지와 손주5, 중년의 남녀, 할머니와 강아지, 엄마와 딸(미혼모가족?)
 - 4)Happyland 광고
-남자아이 둘 사이에 여자아이 하나 그림
→남아선호 사상이 엿보임. 여아이는 분위기 메이커로 보임
 - 5)아동복 판매점의 광고-다리 지체장애 여아동의 패션 그림을 다리 지체장애 남아동이 바라보는 사진
→장애 비장애 아동이 구성된 사진이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 6)보건복지부-다 말기더라도 피임까지 말기진 마세요. 피임은 셀프입니다. 피임은 남자 혹은 여자만의 의무입니다. 함께 신경 써야 할 소중한 약속입니다. 적극적인 피임실천 당신의 사랑에

책임을 다합니다.

-한 쌍의 남녀가 쇼핑을 하고 가는 모습. 남자가 여자의 핸드백 뿐만 아니라 쇼핑 가방 모두를 들고 앞을 보며 가고 여자는 남자의 팔장을 끼고 돌아보고 있다.

→과연 여성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가. 그저 한갓 밤의 꽃에 불과한가? 여성도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7)주최 kpc 한국생산성본부후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하나는 부족합니다.

외동아에게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인간적 발달이 느리고 가정에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이루어 보았으므로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외떡잎과 쌍떡잎 식물 그림

→자녀를 더 낳으라는 캠페인이다. 본인은 선호하는 문구에 공감한다. 한편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요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된다. 여자가 애 낳는 기계인 줄 아나. 누가 애를 키워 줄 것이냐. 무죄인 줄 아나 등등.

2. 마무리

성비의 비율과 남성의 우월, 다양한 가족 형태, 장애와 비장애, 여성의 정체성, 다자녀 출산 장려 등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어느 위치에서든지 각자의 삶이 행복하다면 안정된 사회가 이루어질 것 같다.

우리는 남성이 우월하여 여성을 폄하시켰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현대의 여성으로서 무조건 남성을 무시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서로 존중하여 남성이 잘 하는 것 여성이 잘하는 것을 대화하며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

정상적인 가정과 비정상적인 가정, 장애자와 비장애자 등 보이는 그대로 이해하며 포용하며 살자. 문화다양성을 알아보니 안목이 넓어지는 것 같아 보람이 있다.

안치섭

- 상호토론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의 확장

- 건강 가정 캠페인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논의

-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형태와 다양성의로서의 형태에 대한 논의

-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정책적 아쉬움과 인간 존엄에 대한 기본적 적용

- 문화다양성을 통한 주변의 가정에 대한 인식의 확장 및 이해도 증진

-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라고 볼 때 가족과 성에 대한 다양성의 인식은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 다양성의 범주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

김준아

-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다양성이 소수만을 위한 개념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사님이 말씀하신 모두 다 사회 울타리안에 포함되어지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다양한 가족 포용’이란 단어를 보자. 가족은 그냥 존재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게 꼭 어떻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여지진 않는다. 여러 가지 포스터를 보면서 대화를 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 무엇을 말긴다는 건지? 남녀 모두에게 화가 날 만한 포스터는 2014년 만들어졌다. 왜 의존적인 여성상과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남성상을 만들어 그릇된 인식을 심어 다양성을 해치는 것일까? 가족의 형태도 달라지고 사회의 모습도 다양해지는 요즘 시대에 참 맞지 않는 정부의 포스터다. 다양성이란 무엇일까?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모습대로 온전히 살게 해주면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윤선화

총평 : 2회차 모임은 문화다양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서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강사님 포함 총 5명이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미처 몰랐던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장의 포스터에 차별적 요소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놀랍고 안타까웠습니다.

1>건강가정캠페인 포스터 - 너무 전형적인 가족구성원을 표현한 것이 문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이라는 말이 건강하지 않은 가족을 염두에 둔 것 같아 거슬렸는데 후에 가족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여 반가웠습니다.

2>출산을 권장하는 포스터 - ‘하나는 부족합니다’

문구도 그림도 맘에 들지 않았는데 차후 당선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역시 반가웠습니다.

3>어린이옷 해피랜드 광고 사진 - 옷의 디자인과 색상, 포즈에서 성 고정관념이 드러나서 문제.

4>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포스터에 등장한 가족 그림 - 더 다양한 가족형태를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5>피임 권장 포스터 - 총체적 난국을 보는 느낌의 포스터임.

‘다 말기더라도 피임까지 말기진 마세요’라는 문구도 문제, 여자의 짐을, 심지어 핸드백까지 다 들고 가는 남자의 모습과 빈손인 여자의 모습이 다 문제.

다) 3회 연구모임 Cop

- 일 시 : 2022. 9. 16.(금) 14:00
- 장 소 : 충북문화재단 1층 상상의 터
- 참여인원 : 6명(멘토 1, 멘티 5)
- 주요내용 : 문화다양성 관점으로 충북에서 발행된 각종 홍보물 모니터링 및 토론

| 구분 | 내용 |
|----------|--|
| 토론 주제 | 정부정책 홍보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홍보물 모니터링 (충청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방법 : 문화다양성의 관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자료나 홍보물을 멘티들이 직접 찾아서 가져와 함께 토론 ▷ 특정 직업군에서 성 역할의 문제 예) 의사-남자, 간호사-여자 ▷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 예) 여성독립운동가 ▷ 가족주의(특히 이성애 중심 4인가족)를 조장하는 표현물 : 주제(‘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맞는 표현인가? ▷ 긍정적인 사례로 찾아온 홍보물 사례 예) 양성평등에 적합한 표현 영화 포스터 ‘니얼굴’ ▷ 문화다양성의 영역에 우리의 전통문화나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지 않은가? |
| 실천 방향 논의 |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수자의 비가시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 |

내 생각 작성해보기

김성희

▶ 문화 다양성의 눈으로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의견발표

1. 시민 시 낭송 대회 홍보물(포스터) 행사 취지에 맞는 짧은 시 문구를 선택해서 넣었으면 좋았겠다.
2. 그림이나 사진만 보고 분석하지 말고 문구를 고쳐 써야 할 것이 있는지 더 집중해서 보자
3. 국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교육부 홍보물 늘 단란한 모습의 가족사진을 꼭 써야 했는지? - 틀에 박힌 뻔한 사진보다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진이 보기 좋다.
4. 고딕의 딱딱한 글씨체보다 예쁜 글씨가 보기에 좋고 인식하기에 편하다. 배경이 너무 어둡거나 혼란스러운 영어 문자가 흩어져있는 홍보물(포스터) 조금 부담스럽게 와 닿는다.

▶의견제시: 다음에는 다양한 가족, 이주 민족, 다문화가족 다양한 문화의 홍보물(포스터)을 가지고 토론하면 좋겠다.

전성희

<홍보물에 담긴 가치와 지향성>

1. 제시된 홍보물을 보고 토론
- 1) 특정 직업군에서 성 역할의 문제
예: 의사와 군인-남자, 비서와 간호사-여자 등
- 2)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
예: 여성독립운동가
- 3) 가족주의(특히 이성애 중심 4인 가족)를 조장하는 표현물 속에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라는

글귀는 이상적인 교육을 향하여 스스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고 제의 되었다.
 현대는 사람들이 혼밥을 먹지 않고 모여 살면서 가족을 구성하는 추세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각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지향한다.

4) 긍정적인 사례로 찾아온 홍보물 사례

예) 양성평등에 적합한 표현, 새롭게 보이는 발달장애자-영화 포스터 ‘니 얼굴’

5) 문화다양성의 영역에 우리의 전통문화나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지 않은가?

2. 특이사항

1)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

2) 홍보물의 표현방법이 아니라 홍보물에 담긴 가치와 지향성에 관점 두기

3. 마무리

문화다양성이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여러 관점에서 토론이 되었다. 그 중에 8월호 ‘충북도정소식지’
 표지에 실린 사진에 대한 토론이 부각된다. 삼일 공원에 있는 큰 햇불과 태극기를 배경으로 미명의
 선비, 유생, 민초, 개화된 양반 등과 미명의 한복차림의 여성 2명 독립운동가들의 동상 사진이다.

1)맨티-독립운동가 동상의 구성을 보자. 남성들은 크게 앞면에 여성들은 가장자리와 뒷면에
 배치되었다. 이것은 성차별이지 않은가.

필자-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자 당시 나라에 위태로움을 인식한 남성들은
 숭선수범해서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며 글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국내에서 제압과
 탄압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쳤다. 한일합방의 조짐이 이루어질 무렵 독립운동가들은 활동무대를
 중국과 만주와 러시아로 옮기기 위하여 망명을 떠났다. 독립운동가도 한 집안의 장남이요 가장이다.
 전 재산을 정리하여 형제와 가족들을 인솔하여 같은 시기에 망명한 분들도 계시고 후에 시아버지,
 지아비, 아버지를 찾아 나선 남성과 여성들이 있다. 모두 독립운동가 근거지에 모여들었다.

여성들이 할 일은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와 바느질을 하며 남성 독립운동가들을
 뒷바라지하는 정도였다. 그중에 기밀문서를 전달하고 독립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를 오간
 여성들이 있다. 의열단원처럼 임무를 받고 서울에 잠입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서울의 지리를
 안내하기도 하였다. 남들이 보기에 인물이 수더분하고 어수룩하게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러하니
 동상의 배치는 사실적인 표현이다.

맨티-식사를 준비하고 빨래, 청소, 바느질을 할 사람이 없다면 남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

또한 기밀문서를 전달하고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고 지리를 알려주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여성독립운동가들도 남성독립운동가들처럼 한몫 하였다. 여성독립운동가들을 폄하하지
 말라. 나아가 여성들도 동등한 입장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필자-문화다양성 중 성차별에 대한 화제로 돌아왔다. 옛날에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놀려
 살았다. 현재는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 세상이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존개도 필요하다.

맨티1-모르시는 말씀이다. 여성들의 염색체 속에는 남성의 세포만으로도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발표되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지만 핀란드라고 기억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가사노동에도 임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남성, 여성, 장애인, 비장애인 등 소수의 다양성 인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문화다양성 맨티들이 아닌가. 긍정적인 시선도 필요하다.

안치섭

오늘의 수업진행은 각자가 준비해온 홍보물이나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논의 하는 시간이었다. 각자 준비한 자료들은 대략적으로 3~5개를 선정하여 왔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주제들에 대해 논의 한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두서비생명만마당’의 포스터인데 주제가 영화 “니얼굴”인데 포스터의 얼굴들이 평범하지 않고
 다소 색다른 느낌을 주는 그러한 포스터이다. 준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영화는 제18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한국경쟁 우수상 수상작으로 다운증후군의 평범한 일상을 그린 영화이다.
 그런데 포스터에 대한 문화다양성 관점에서의 분석과 지적 보다는 오히려 포스터가 가진 장점과

그 속에 담긴 긍정의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다. 왜 그랬을까? 짧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이미 많은 사회적 시선과 편견으로부터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이 포스터는
 사회적 시선과 편견으로부터 많은 부분 자유로웠고 평범하지 않은 포스터의 얼굴은 우리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는 자연스런 매신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수업은 더 무르익어 한층 각자의 의견을
 서슴없이 개진하였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20분의 시간이 정말 여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Lab의 구성원들은 몰두해 있었고 그 진지함 속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색과 개성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철철 넘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무튼 수업이 끝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하면서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작별 인사를 하곤 또 2주 뒤의 수업을 기대하게 된다.

김준아

▷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고정하는 사례를 포착

▷ 가족의 다양성을 유지하여야 하나 이상적이라고 대표되는 가족을 배제하는 것이 다양성인가? 그런
 가족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무엇이 다양성인가? 기존의 것을 배척하는 것이 다양성인가? 다양성은 그것도 인정하는 것이
 다양성이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상이 왜 잘못된인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문제이다.

- 우리나라의 사회망을 더 견고히 해야한다. 취향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야 한다.

-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수라고 역차별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무엇이 편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한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 무엇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하는 사회의 문화가 잘못됐다. 편견을 버리고 같이 인정해야 한다.

윤선화

총평 : 3회차 모임에서는 각자 준비해온 자료에 나타난 문화다양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한 사람이 긴 시간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또한 다양성의 기준으로 감내하기도 하고

역시 다양성의 기준에서 자르기도 하면서 우리의 2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내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오래 전의 학창시절에도 있었다면 저는 행복한
 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하고 듣는 기쁨을 누리고 다양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넓은 공간이어서 마음도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차별적인 것에 다소 치우쳤던
 초점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 다양한 인종, 이주민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 포스터 - 남자 옷은 분홍색, 여자 옷은 하늘색으로 표현한 것이 고정관념을 떨친
 것이라 좋았습니다.

교육부 2020년 업무 계획 포용 포스터 - 너무 전형적인 가족구성인 4인 가족을 표현한 것이 문제이고

두 아이를 아버지 혼자서 안고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교육을 강조하는 포스터에 부모를 등장시킨
 것은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부모의 책임을 은연중에 강요하는 것 같아 부적절하다 생각했습니다.

충북의 독립운동을 다룬 기사 속 그림 - 남성 2명 사이에 여성 1명이 있어서 여성을 1명 더 그리거나
 남성을 1명 줄이거나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북도정소식지 8월호 11면 ‘이달의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코너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는 것은
 좋지만 남성독립운동가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처럼 여성독립운동가라는 말도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양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노력하고 배려하면
 어렵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 4회 연구모임 Cop

- 일 시 : 2022. 9. 30.(금) 14:00
- 장 소 : 충북문화재단 1층 상상의 터
- 참여인원 : 3명(멘토 1, 멘티 2)
- 주요내용 : 문화다양성 관점으로 충북에서 발행된 각종 홍보물 모니터링 및 토론

| 구분 | 내용 |
|----------|---|
| 토론 주제 | 정부정책 홍보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홍보물 모니터링 (충청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방법 : 문화다양성의 관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자료나 홍보물을 멘티들이 직접 찾아서 가져와 함께 토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참가자들이 불참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못함 문화다양성의 확장성에 대해 토론 ▷ 문화다양성은 ‘인권’의 또 다른 이름이다. :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의 확산 예) 장애인은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권, 이동권, 행복추구권 등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아프리카의 기아 아동 돕기 캠페인의 문제점 살펴보기 |
| 실천 방향 논의 |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 문화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배려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는 것 인식 |

내 생각 작성해보기

김성희 ▷ 【광고 대상】 훼손된 홍보물 살펴보고 토론
▷ 문화 다양성의 눈으로 멘토가 준비해온 P.T 보고 아프리카 아이들의 생활을 재조명한다.
<개인적인 의견을 가장 많이 발표했고 멘토에게 질문을 많이 했음>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구분하는 것도 사회적 편견이다.
그들도 목표를 갖고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똑같이 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다.
아프리카의 실상은 사진 속에 보이는 아이들처럼 모두 불행하거나 모두 힘들게 살지는 않는다. (홍보물 토론)
홍보물만 보고 동정심으로 도움을 주기보다 노력하면 더 잘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소수 집단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인식의 개선)

전성희 <소통이 중요하다. 인권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 다수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한다. 반면 소수의 사람은 저런 사람들과는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 문화다양성 수업을 가면 노는 시간인 줄 안다.
- 게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성적 지향이 다르다. 대체로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을 한다
- 왕따
왜 따돌림을 당한 아이를 공격하는가?
해결방안은 상담자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다. 사람은 마음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다.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는 이유는 가치와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결혼함으로써 이주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다. 우리나라는 이민정책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저조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바뀔 수 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후진국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남편과 시집식구들과의 문제로 인하여 도망자가

많다. 그러나 일반화 시키지 말자.
문제를 쏴해보면 시어머니 모시기, 후진국이란 선입견, 다문화아이에게 힘이 약하고 공부 못한다고 이름 대신 다문화야 안정! 작은애! 등 낙인 효과 같은 별호를부른다.

마무리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문화다양성을 실험하고 연구하는 이유다. EBS에서 20대 젊은이들이 장애아에 대한 라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활동과 스포츠 등 다양한 면에서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드디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마) 5회 연구모임 Cop

- 일 시 : 2022. 10. 7.(금) 14:00
- 장 소 : 충북문화재단 1층 상상의 터
- 참여인원 : 5명(멘토 1, 멘티 4)
- 주요내용 : 문화다양성 관점으로 충북에서 발행된 각종 홍보물 모니터링 및 토론

| 구분 | 내용 |
|----------|---|
| 토론 주제 | 정부정책 홍보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홍보물 모니터링 (충청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방법 : 문화다양성의 관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자료나 홍보물을 멘티들이 직접 찾아서 가져와 함께 토론 ▷ 아프리카의 기아 아동 돕기 캠페인의 문제점 살펴보기 : 노르웨이 젊은이들의 중차 캠페인(추위에 떨고 있는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에서 히터를 모아 보내자는 취지의 캠페인 제작) 갈등과 혐오가 극심한 대한민국의 현주소 : 특히 혐오표현으로 남녀갈등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현상에 대한 우려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IT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 미디어의 역할이 축소되고, SNS를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 - 문화다양성 확산이 현재의 중요한 과제 |
| 실천 방향 논의 |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 각자 본인의 활동 영역에서 문화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

내 생각 작성해보기

김성희 강사님이 준비하신 미디어는 다양한 장애가 있는 남·여 청년 장애인들이 모여서 생활 체험을 하기 위해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준비하는 과정의 교육 방송 프로그램이었다. 다양한 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밝고 순발력 있는 모습으로 서로 편하고 자유롭게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편견 없이 장애인을 인정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장애인에 대한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장애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느리지만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인 예술가들의 활동상을 홍보하는 홍보물은 우리와 조금 다른 표정의 지적 장애인 배우와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피아니스트였다. 명성을 얻고 있는 그녀들의 모습이 당당해 보여 나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웠다. 문화 다양성이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아직도 편견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잘 해내야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성희 <거울효과>
Say yes to Riadi - Aid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르웨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라디에다를 놓아 주며 추위로 도와주겠다.
모금은 편견이다.
아프리카는 유럽의 식민지였다. 의도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의미를 둔다.
미디어를 통하여 존중을 보아야 한다.
- 온누리반을 사행시로 지어보자.
- 건강가족사 자격증
- 여성가족부 폐지-남성가족부는 왜 없느냐. 여성가족부 폐지하면 표 안 주겠다.
- 소수에 대한 혐오는 다양성 이해의 결핍
운전 못하는 여사=김여사
한남충-패미니즘을 표방하는 여성들이 한국 남자 전반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 캐나다는 저녁 6시 이후 길에 사람이 안 다닌다. 비디오가게를 6시 이후 9시까지 열었다. 강도가 들어오기도 한다. 어느 날 흑인 손님이 찾아와 강도인가 의심하였다.
영화 등에서 갱단은 흑인이 출연한다. 선입견이 생기는 요인이다.
- 이슬람 사람을 차별하느냐. 내부부장관도 있다.
- 폭력은 남자에 대한 선입견이다.
- 통계가 확실한가?
흑인과 백인의 차별. 불법체류자는 중국인이다.
SNS-실시간 검증이 필요하다.
테프링은 해외직구 상품이 맞는가.
정권유착은 맞는가.
사람은 보수적이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시민의식이 발전해야 한다.
- 아동학대에 대한 판결이 아직 느슨하다.
부모의 매질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서 사회만 지탄하는 경우
- 왕따 따돌림 아직 심하다.
- 교권 추락
- 문화다양성 가운데 왕따.
각 대사관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흑인 학생이 왕따를 당한다.
- 안권교육의 필요성
내 권리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
- 강한 사람 약한 사람
- 장애인 노동권
시각장애인-안마사
장애인 탈시설화가 필요하며 능력주의로 인식되어야 한다.
- 첸데. 장애인.
- 영화인과 장애인과의 쿼터제
진정성과 성실함을 본다.

마무리
문화다양성에 대한 선입견을 지우자. 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전통적인 문화는 습관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습관은 바뀔 수 있다. 현대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르네상스 즉 교차하는 시기다. 문화기획자가 되어 문화다양성 이해를 촉구할 일이다.

벌써 수업 진행 5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담당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과 안면이 익어 다소 반갑고 편안함이 느껴졌다. 수강생들의 연령대는 30대, 50대, 60대, 70대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 인원은

안치섭

5명이다. 그러다 보니 연령별 문화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4차의 수강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의 시간에 대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상호 토론은 개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까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특히 성에 대한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 사회가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서로 공감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나 방향성까지도 상호 대화가 전개될 수 있었다. 단지 아쉬움이 남는다면 남녀에 대한 생물적 차이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 그 이유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생물학적 ‘다름’과 한 인간으로서의 ‘다름’의 차이에서 오는 오랜 인류의 문제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패미니스트에 대한 생각도 많은 차이점을 보였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인지 어려운 접근의 대상이어서 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합의 점 보다는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문제의식으로 마무리할 수 없어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다. 이렇듯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 되면 언제나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 작은 미련과 아쉬움으로 다음을 기약했다.

김준아

-다양성이란 개념은 5회차를 오면서도 아직 어렵다. 다양성이란 말이 다양하지 않다. 혐오란 단어는 다양성의 반댓말인가? 서로를 향한 악감정이 우리의 다양성을 망치고 있다.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하지 못한 사고를 멈춰야한다.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지 말고 서로 존중해야한다. 모두가 어울려 살 수 있어야 서로가 행복하다.

청주 상당보건소에서 몇 년 전 만든 포스터다. 객관적인 사실은 남자의 길거리 흡연율이 높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과 그것을 고정하는 건 문제가 다르다. 이런 고정관념이 아쉽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한다면 그건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다. 단정짓고 각인한다면 그것만으로 세상은 좁아지고 답답해진다.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 자신이 남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가져야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인식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바) 6회 연구모임 Cop

- 일 시 : 2022. 10. 14.(금) 14:00
- 장 소 : 충북문화재단 1층 상상의 터
- 참여인원 : 5명(멘토 1, 멘티 4)
- 주요내용 : 문화다양성 관점으로 충북에서 발행된 각종 홍보물 모니터링 및 토론

| 구분 | 내용 |
|----------|--|
| 토론 주제 | 정부정책 홍보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홍보물 모니터링 (충청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방법 : 문화다양성의 관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자료나 홍보물을 멘티들이 직접 찾아서 가져와 함께 토론 ▷ EBS-TV 프로그램 ‘세상을 비집고’ 소개 : 청년 장애인 4명의 토크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 충주 사과 자판기 홍보물 : 충동구매의 주체는 여성이라는 편견을 드러냄 - 사회와 교육과정 개편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 개정안에 있는 성평등, 성교육 및 성역할 교육 등에 대한 찬반론 - 문화다양성 존중은 갈등을 대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 다양성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는 토론 문화가 필요 |
| 실천 방향 논의 |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 각자 본인의 활동 영역에서 문화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

연구내용

김성희

▷ 【광고 대상】 훼손된 홍보물 살펴보고 토론

전성희 선생님 가져오신 신문 광고는 2024년 초·중·고 교육과정 성 소수자 인권교육 포함(교과서) 개정에 반대하는 광고였다. 전성희 선생님 개인 의견은 하나님에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의미를 무시하고 아무리 문화 다양성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하지만 찬성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교육생의 의견은 성 소수자를 인정하려는 사회의 현실적인 흐름에서는 그들의 개인 성향도 인정해줘야 하지 않은지? 나의 의견은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면 성 소수자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지만, 교과서개정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소감: 강사 선생님의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편안한 교육 진행이 함께 토론하는 교육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었고 다양한 개성의 사람들 속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배울 것은 받아들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성희

<문화다양성 조화>

문화다양성 훼손은 혐오와 표현과 현상에서 시작된다. 온라인 현상은 다양한 가치 알고 확산하는데 의미가 있다.

EBS프로 세상을 비집고-두근두근 첫 만남

- 청각, 지체, 시각, 지체(다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

장애인 학교나 시설. 미디어. 활동 과정에서 생성.

모두 함께 평등하고 차별 없이 사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 마케팅의 달인

소비를 충동한다. 고객은 여자들이 대부분이다.

- 사회와 교과서 개정. 공청회. 성평등과 성교육

젠

성평등-성소수자 반대인가? 찬성인가?

피임

고딩맘

- 불합리한 정책에 관한 관심을 갖자.-인권, 성인지, 성폭력.

- 언어발달

2019년(코로나 발생) 이후 탄생한 아이는 언어발달이 느리고 학습능력이 떨어진 다. 개인 책임이 더해진 사회가 되었다.

마무리

조각보는 다양성을 상징한다. 서로 다른 색깔과 형태가 모여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

다움을 나타낸다. 사람이 공동체가 아닌 비누방울 속에 들어있다면 어떠하겠는가?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모두 함께 다수와 소수의 구분 없이 행복을 추구

할 권리가 있다.

문화다양성을 실험하고 연구하는 이유다.

안치섭

- ‘문화다양성’이라는 말은 많이 접해왔다. 하지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이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시각과 접근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연령, 지역, 문화, 가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상호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이질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어떤 주제가 되었든 간에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고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문화다양성을 만끽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재단측의 다양한 시도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많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강좌 참여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다양한 연령의 참여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의 참여 그리고 강좌 구성에 있어서도 1년 단위보다는 조금은 장기적으로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1년의 과정이라면 한두달이 아닌 1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김준아

장애인의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나오는 ‘세상을 비집고’라는 프로그램의 오프닝을 보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지,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다. 영상에서보는 장애인들은 밝고 구김없지만 그런 밝은 면만 보여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됐다.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고 밝은 것만 보여주는 건 오히려 왜곡한다고 보여진다.

충주시청에서 홍보한 충주사과자판기.

충동구매에 대한 이미지가 여성에 국한되어 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지, 일부 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격양되었다. 성별과 젠더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걸까? 사회와 타협이 없이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참 답이 없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보았지만 답은 딱히 없다. 하지만 소외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윤선화

총평 : 3회차 모임에서 토론의 즐거움을 맛보았기에 계속 참석하고 싶었지만 청주에 있지 않아서 두 번 빠졌고 무척 아쉬웠습니다. 6회차 모임에서도 각자 준비해온 자료에 나타난 문화다양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잘못된 사례를 볼 땐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 잘된 사례를 볼 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회원이 군대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토론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동성의 군인들끼리 악수하는 것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분 전에는 이상하다, 과민 반응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생각이 달라지는 제 자신에 놀랐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려 들면 어떤 사례라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당일 여행을 가서 사진 찍을 때 얼굴만 아는 남자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놓아서(미미한 감촉이어서 제가 잘못 느꼈나 했는데 집에 와서 사진을 보니 역시 손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공감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락 받지 않은 접촉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관련 의식변화 포스터 - 전형적인 3대 가족의 모습이어서 다양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 포스터 - 포스터에 등장하는 여자들이 대개 치마를 입고 굵은 구두를 신는데 이 포스터도 그랬습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활동적이고 편안한 옷과 신발을 착용한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 정보 포스터 - 아이의 옆에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서있는데 아빠가 서 있거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우리의 생각이나 모습이 다양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름 뿐 틀리지는 않으니깐요. 물론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뜻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여유를 갖고 화내지 않을 때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 성과공유회

- 일 시 : 2022. 10. 21.(금) 14:00
- 장 소 : 가람신작
- 참여인원 : 6명(멘토 1, 멘티 5)
- 주요내용 : 충북 문화다양성 Lab 참여자 대상 연구과제 추진결과 논의

| 구분 | 내용 |
|-------|--|
| 멘토 소감 | 문화다양성Lab 성과공유회 소규모 인원이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어 좋았다. 토론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다. 처음에는 문화다양성이 이주민과 관련된 다문화 이슈에 한정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 주로 문화 다양성 이슈가 양성평등, 성소수자 차별 등에 집중되는 것 같아 심리적 피로감을 느꼈다. 세대 차이, 지역 격차 등 좀 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진다면 좋겠다. 역지사지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장애인에 대해 동정이나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점을 바꾸고 보니 훨씬 편하게 대할 수 있었다. 평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확실히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다. |

연구내용

김성희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실적인 개인의 삶을 유지하며 살기도 바빴던 사람들이 개인의 취미를 갖기도 하고, 공통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 배우고 준비하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결과물을 전시한다. 문화 다양성 Lab 팀은 이미 세상에 광고했던 훼손된 홍보물을 속제로 찾아와서 잘못된 문구와 그림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였다. 서로 다른 모습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름의 생각과 판단을 서로 인정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토론을 했다.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이미 생활 속에서 문화의 다름을 실천하고 살았지만 그것을 특별하게 의식하며 살지 못했다. 또한 소수의 집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름을 이야기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이해하며 버려야 할 고정관념은 버리게 되었고, 나와 다른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세대 간의 차이가 느껴지고 가끔은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기도 했지만, 그 다름마저 정신적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전히 자기 세계 속에서 다양한 개성을 드러내며 살고 있겠지만 다름의 인정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 문화 다양성 Lab 팀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전달하고 숏선수법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교육받으면서 더 먼저 깨닫게 되었던 문화 다양성의 모든 소중한 지식과 지혜를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파해야 이 모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 Lab 교육을 기획한 충북문화재단과 여러모로 수고하신 문화복지팀 담당자에게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교육을 이끌어준 멘토님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성희 문화다양성Lab의 의미와 보람
1. 일상에서 문화다양성 사례 찾아보는 다양한 방법
1) 일상에서 파생하는 문화다양성
-언어 -성폭력 -장애인 등
2) 영화를 통한 문화다양성
서프리지트 : 여성의 참정권과 성폭력
아이 캔 스피크 : 일본군 성노예
나, 다니엘 블레이크 : 빈곤과 장애
그랜 토리노 :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등등
3) 신문, 포스터 등 홍보물에 숨어 있는 문화다양성

마무리
이번 문화다양성Lab은 신문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문화다양성 소재를 찾았다. 명성있는 곳에서 찍어내는 인쇄물에는 문화다양성의 차별을 찾기 어려웠다. 간혹, 사회 전반이 들먹들먹 할 정도로 지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달자의 의도와 수용자의 인식 차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기업이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 고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속에 문화다양성이 아닌가 싶다. 나이가 짝 짝 노장으로서 충북문화재단이 기획한 문화다양성Lab에 동참하게 된 것은 영광이다. 나의 인식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생긴 것이다. 너나 나나 모두 함께 차별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조각보처럼 인종과 종교, 여성과 남성, 빈곤과 학대, 비장애자와 장애자가 서로를 이해하며 어우러져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안치섭 - ‘문화’라는 말 자체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 장소, 시대 등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어야 하지 않나 싶다. 최근 들어 세대간 소통의 단절에 대하여 많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로부터 볼거졌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근대를 지나 근현대,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미디어의 발달, 통신의 발달, IT, BT, NT, ET, ST에서 CT로 이어지기까지 과거 이래 엄청난 과학적 발전을 이룩했고 과학의 발달 속에 인간의 문명이 진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은 과학의 주체이면서도 언제부터인가 과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 대표적인 현상이 세대 간 소통 단절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 20세 이전 젊은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핸드폰과 함께 보낸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과의 소통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대화를 통한 소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세대 간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세대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을 구축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확대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준아 마지막 시간, 서로의 생각과 나름의 감상을 이야기 했다. 나의 그렇다. 우리는 각자 다른 연령과 성별, 그리고 생각들을 가지고 만났다. 그것이 너무 신선했다. 어머니 세대의 어르신도, 삼촌뻘의 남자선생님도, 이모뻘의 여자선생님도 계셨다. 우리는 세대를 막론하고 대화하였다. 토론중 열린 생각과 넓은 사고를 갖고 계신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을 듣고 놀란 적도 있고, 각자의 경험담을 나누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며 같이 화를 내던 적도 있었다. 많이 배우고 깨어진 시간이었다. 나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남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서 그 인생을 함부로 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을 도우며 인정하려고 노력하겠다. 이해가 필요한 일은 없었고, 사고를 확장하면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며, 사회의 안정양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노력하겠다.

윤선화 마지막 시간이라 시원섭섭했습니다. 여름에 초롱이네도서관에서 문화다양성 강의를 세 번 들었던 것을 계기로, 충북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Lab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 Lab을 통해 다시 한 번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김새도 생각도 다른 우리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b을 통해 토론의 기쁨을 만끽한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맞아 드는 생각은,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이든 이해하려 들면 이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반면 배척하려 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또는 많이 다르고, 조금 또는 많이 이상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겠다 싶습니다. (제가 원래도 민감하여 시야의 유명 누드화속에서 벗은 여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상했는데 이번 문화다양성 Lab에 참여하여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 더 민감해질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충북문화재단에서 책임지세요.^^)

2021년 충북 문화다양성 기초 실태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2021. 12.

제1장 사업 개요

제1절 사업 배경 및 목적

2017년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도내 문화다양성 환경 및 자원 현황 파악 필요
도내 문화다양성의 현위치와 생태계 진단을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및 방향성 설정
도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운영 발굴 토대 구축

제2절 사업 내용

문화다양성 관련 자원 및 서비스 등 지역 내 문화다양성 현황 조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제도 및 수립 제반 조사
충북 문화다양성 확산 및 활성화 방향 도출

제3절 사업 범위 및 방법

[표 1-1] 사업 범위 및 방법

| 구분 |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 충북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 전문가 인터뷰 |
|-------|---|--------------------------------|----------------------------|
| 조사 대상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일반인, 예술인, 문화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 문화 관련 전문가 |
| 조사 규모 | - | 220명 | 2명 |
| 조사 방법 | 문헌조사 | 대면, 온라인, E-mail 조사 | 비대면(화상) 인터뷰 |
| 조사 내용 | 문화다양성 개념 및 영역 / 충청북도 인구·소수집단 및 무지개사업 실태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 충청북도 문화다양성 인식, 제도/정책 개선 관련 |

제2장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제1절 문화다양성 정의 및 범위

1. 문화다양성 정의
충청북도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을 위해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설정함. 이 조례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적 관용’을 정의함. 이 조례에 따른 문화적 관용(제2조)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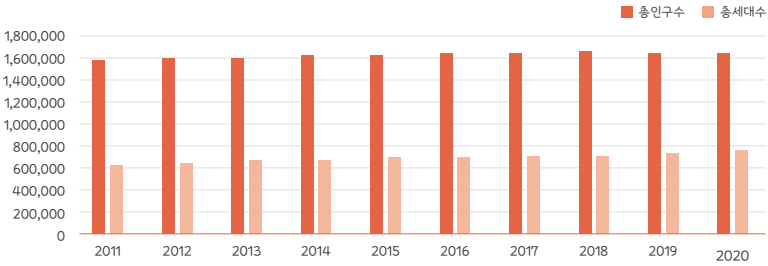
2. 문화다양성 범위
2010년 유럽위원회에서 강령으로 시행한 ‘다양성 헌장(EU Platform of Diversity Charters)’에 근거하면 다양성과 평등한 기회 증진을 위한 문화 다양성의 핵심 범위를 성별, 나이, 성적지향, 민족·인종, 장애, 종교로 설정함
독일은 문화다양성 헌장에 근거하여 성별, 나이, 성적지향, 신체능력, 민족, 인종의 내적 차원과 함께 지역, 종교, 교육, 직업 등과 같은 외적 차원을 포괄하는 다양성 범주를 설정함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범위는 성별, 장애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 소수집단의 관점에서 정의되었으나 종교, 소득, 결혼 연부, 전통, 지역, 예술 취향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연구에 나타난 문화다양성의 범위는 소수자집단과 사회문화현상, 문화예술분야의 영역에서 범주화되고 있음. 집단별로는 다문화 이주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이 선행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요 소수 집단임

제2절 충북의 인구/소수집단 현황

1. 충북 총인구 및 총세대 현황

2020년 기준 충북의 총인구수는 1,637,897명이며 총 세대수는 745,644개로, 인구 기준 2020년 대한민국 총인구수 51,801,449명의 약 3%에 달하는 비율임

[그림 2-1] 충북 총인구 및 총세대수의 연도별 변화 (단위 : 명, 개)



출처: 충청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 연령별 인구 현황

2020년 기준 충청북도 연령별 인구는 50~59세의 구성비 가장 높았고(17.0%), 40~49세(15.3%), 60~69세(13.7%)가 다음의 순서임

[표 2-1] 충북 연령별 인구수와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명, %)

| 구분 | 2019 | | 2020 | | 증감 | |
|----------|-----------|-------|-----------|-------|--------|-------|
| | 인구 | 구성비 | 인구 | 구성비 | 인구 | 증감률 |
| 총 계 | 1,640,721 | 100.0 | 1,637,897 | 100.0 | -2,824 | -0.17 |
| 0 ~ 9세 | 130,926 | 8.0 | 124,910 | 7.6 | -6,016 | -4.59 |
| 10 ~ 19세 | 155,770 | 9.5 | 150,381 | 9.2 | -5,389 | -3.46 |
| 20 ~ 29세 | 214,681 | 13.1 | 211,650 | 12.9 | -3,031 | -1.41 |
| 30 ~ 39세 | 212,197 | 13.0 | 206,527 | 12.6 | -5,670 | -2.67 |
| 40 ~ 49세 | 249,048 | 15.2 | 246,226 | 15.0 | -2,822 | -1.13 |
| 50 ~ 59세 | 278,968 | 17.0 | 277,927 | 17.0 | -1,041 | -0.37 |
| 60 ~ 69세 | 208,238 | 12.7 | 224,266 | 13.7 | 16,028 | 7.70 |
| 70 ~ 79세 | 119,003 | 7.3 | 120,627 | 7.4 | 1,624 | 1.36 |
| 80세 이상 | 71,890 | 4.4 | 75,383 | 4.6 | 3,493 | 4.86 |

출처: 충청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3. 소수집단 현황

외국인 현황

2020년 기준 충북의 외국인수는 37,060명임

[표 2-2] 충북 외국인 인구수와 충북 구성비 (단위 : 명, %)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인구 | 25,730 | 24,829 | 27,431 | 30,655 | 32,637 | 35,499 | 36,656 | 39,537 | 40,714 | 37,060 |
| 구성비 | 1.6 | 1.6 | 1.7 | 1.9 | 2.0 | 2.2 | 2.2 | 2.4 | 2.5 | 2.3 |

출처: 충청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다문화 가구 현황

2019년 기준 충북의 다문화 가구수는 총 11,342개임

[표 2-3] 충북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수 (단위 : 명, 개)

| 다문화 가구수 | 다문화 가구원 | | | | |
|------------|---------|---------|---------|------------|---------|
| | 소계 | 내국인(출생) | 내국인(귀화) | 외국인(결혼이민자) | 외국인(기타) |
| 11,342 | 36,290 | 24,212 | 5,320 | 5,568 | 1,190 |

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 기본통계」

장애인 현황

2019년 기준 충북의 장애인 수는 총 97,688명

[표 2-4] 충북 장애인 수와 구성비 (단위 : 명, %)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인구 | 94,855 | 94,137 | 93,563 | 93,612 | 93,536 | 94,688 | 95,844 | 97,086 | 97,688 |
| 구성비 | 6.0 | 5.9 | 5.8 | 5.8 | 5.8 | 5.8 | 5.9 | 5.9 | 6.0 |

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 기본통계」

북한이탈주민 현황

2020년 3월말 거주자 기준 우리나라 북한이탈주민은 31,220명

[표 2-5] 충북 북한이탈주민수와 구성비 (단위 : 명, %)

| 구분 | 충북 | 전체 | 구성비 |
|----|-------|--------|-----|
| 남 | 248 | 8,007 | 3.1 |
| 여 | 1,030 | 23,213 | 4.4 |
| 합계 | 1,278 | 31,220 | 4.1 |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

제3절 무지개다리 사업 소개

1. 무지개다리 사업 개요

무지개다리 사업은 새로운 문화다양성의 자원 발굴 및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다양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시범 사업 이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사업임

[표 2-6] 무지개다리 사업 개요

| | |
|---------|--|
| 사업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모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광역 및 기초단위 지역권의 공공문화재단·공공문화기관 |
| 주요사업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관점의 사업 개발 및 자원 발굴 사업 •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 지역사회 다양한 문화주체(소수자, 다수자 포함) 간 소통·교류프로그램 운영 |

2. 충북 무지개다리 사업 현황

충북은 2012년 무지개다리 시범 사업에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참여한 이후 2013년을 제외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그 중 충북문화재단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8년째 무지개다리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함

[표 2-7] 충북 무지개다리 사업 주관기관

| 기관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 | | | | | | | | |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 | | ● | ● | ● | ●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 | ● | ● | ● | ● |
| 충주중원문화재단 | | | | | | | | ● | ●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2020년 무지개다리 컨설팅·평가 연구

제3장 충북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분석

제1절 충북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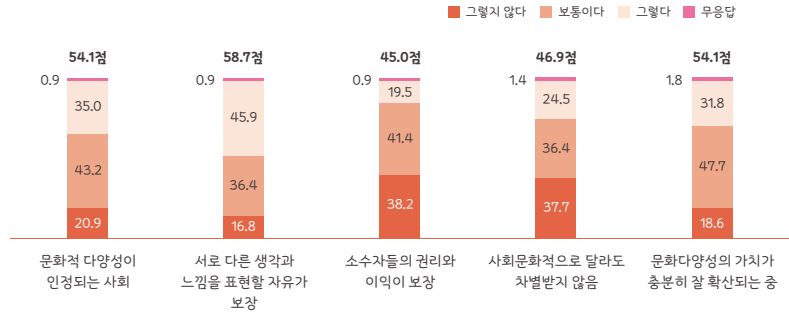
[표 3-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 전체 | (220) | 100.0 | |
| 대상 | 예술인 | (47) | 21.4 |
| | 단체/기관 관계자 | (63) | 28.6 |
| | 충북도민 | (110) | 50.0 |
| 성별 | 남성 | (84) | 38.2 |
| | 여성 | (111) | 50.5 |
| | 무응답 | (25) | 11.4 |
| 연령 | 20대 | (41) | 18.6 |
| | 30대 | (64) | 29.1 |
| | 40대 이상 | (89) | 40.5 |
| | 무응답 | (26) | 1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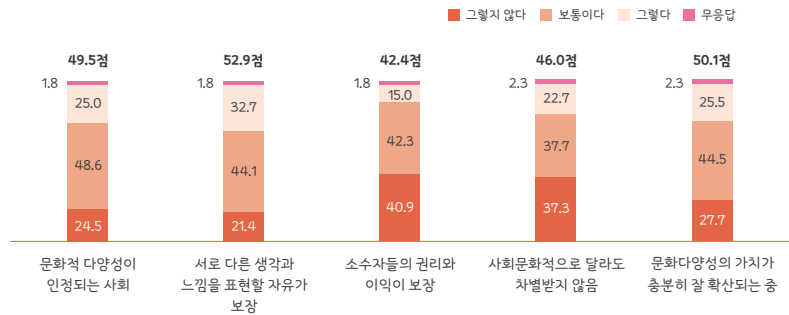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수준

전체 응답자에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물어본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우리나라 58.7점, 충북 52.9점)으로 평가받았고,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의견이 가장 낮은 수준(우리나라 45.0점, 충북 42.4점)으로 평가받음

[그림 3-1]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 우리나라 (단위 : %)



[그림 3-2]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 충청북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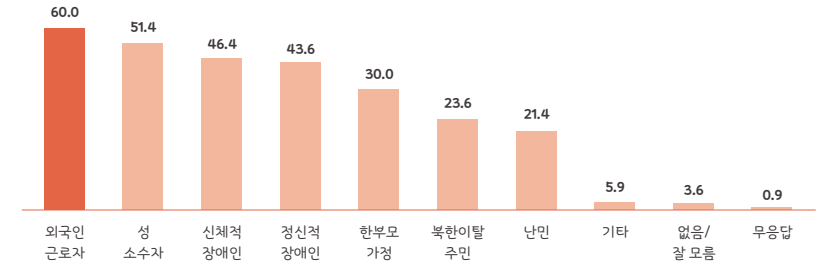


* 응답자 Base : 전체(N=220)

2.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집단

전체 응답자에게 충청북도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집단에 대해 물어본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6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성 소수자(51.4%), 신체적 장애인(46.4%), 정신적 장애인(43.6%) 등의 순을 보임

[그림 3-3]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집단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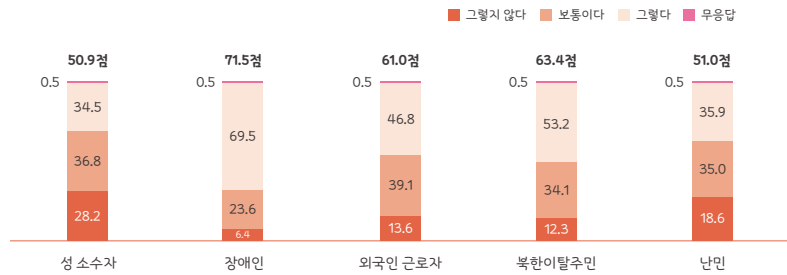


* 응답자 Base : 전체(N=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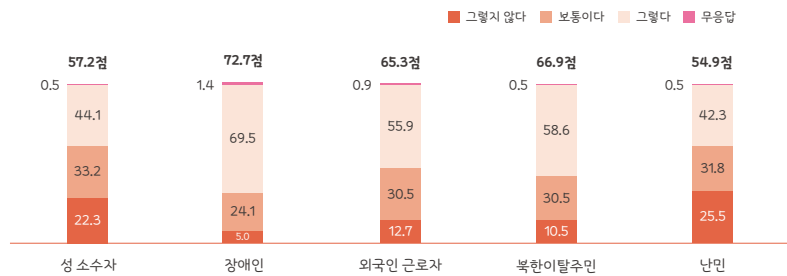
3. 각 구성원별 수용 가능 정도

전체 응답자에게 우리 사회의 특정 구성원을 자신의 가족/동네주민으로 수용 가능한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0점 평균 기준 가족으로 수용 가능한 정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구성원은 장애인(71.5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구성원은 성 소수자(50.9점)로 조사되었고, 동네 주민으로 수용 가능한 정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구성원은 장애인(72.7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구성원은 난민(54.9점)으로 조사됨

[그림 3-4] 각 구성원별 수용 가능 정도 - 가족 (단위: %)



[그림 3-5] 각 구성원별 수용 가능 정도 - 동네주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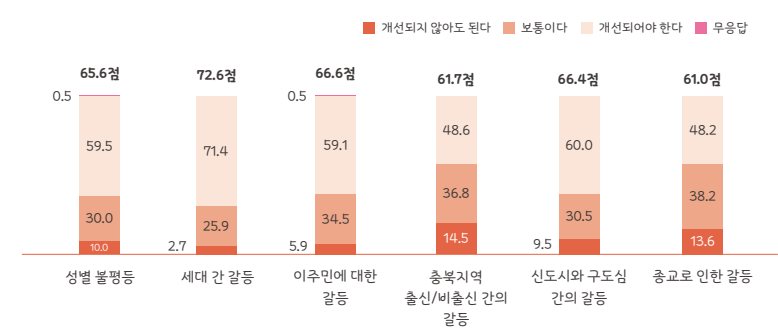


* 응답자 Base: 전체(N=220)

4. 우리나라 사회 현상 중 충청북도에서 개선해야 할 것

전체 응답자에게 우리 사회 현상 중 충청북도에서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0점 평균 기준 세대(연령) 간 갈등이 7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이주민(외국인 근로자, 난민, 인종 등)에 대한 갈등(66.6점),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갈등(66.4점), 성별 불평등(65.6점), 충북지역 출신/비출신 간의 갈등(61.7점), 종교로 인한 갈등(61.0점) 순임
그 외 빈부격차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소수 응답도 나타남

[그림 3-6] 우리나라 사회 현상 중 충청북도에서 개선해야 할 것 (단위: %)



제2절 전문가 인터뷰 결과

문화다양성 관련 전문가에게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사업/제도/정책 등의 개선 방법 등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충북의 문화다양성 인식) 충북만의 문화다양성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으로 인한 혐오는 우리나라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급속적인 성장으로 강요된 이념 속에 있었던 한국사회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임

(충북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 소수집단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기회/혜택은 어느 정도 있지만,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특히 지역적 소외감(수도권/비수도권, 도심/비도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충청북도 문화다양성 사업/정책 개선방안) 충청북도의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지정은 좋으나 예산을 계속 늘려가며,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게 중요하며, 사업을 평가할 때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면 안됨, 다양한 사업의 추진/시도/과정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문화다양성의 맥락이나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는 인재가 문화다양성 사업 관련 담당자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타 지역의 문화다양성 우수사업/정책) 경기문화재단은 현장에서 활동할 때 문화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안내서를 제작하고 있으며, 부산문화재단은 무지개다리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사례로 꼽히는데, 현장의 기획자, 활동가들과 꾸준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여 과정적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그 외 충북 문화재단의 역할) 공공기관, 재단의 조직 구조가 순환보직과 같은 특성이 있지만 문화다양성 사업은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일반적인 지원사업이나 운영관리하는 사업과는 차별화된 직원 배치

제4장 시사점 및 제언

제1절 충북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충북 도민 인식 제고 필요

충북도민이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교육의 접점을 학교, 지역사회, 온라인, 오프라인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충북도민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소수집단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 제고 방안 모색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의 활용, 소수집단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 및 봉사활동 등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문화다양성 추구를 통한 충북의 사회적 갈등 해결 노력 요구

충북도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소수자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고 그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도민의 문화다양성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여 사회적 갈등 문제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제2절 충북의 문화다양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

1. 충북의 문화다양성 정책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체계 구축

충북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추진 방향, 추진 전략 및 전략 과제의 체계적 구조를 설정하는 중·장기적 전략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의 존중과 가치 확산이라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본질적 성격은 유지하면서 충북만의 지역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의 방향성 모색이 필요함

2.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에 따른 광역도(충북)의 역할 확립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의 기조에 따른 지역 기반 문화다양성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 기관의 역할이 필요함.

충북권에서는 ‘조약돌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광역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과 광역 문화재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 단위의 문화다양성 센터와 같은 광역도의 문화다양성 거점 기관의 설립은 문화다양성 정책 구현 및 사업 운영을 위한 물리적 공간 제공과 지역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허브(hub) 역할 수행을 통해 문화다양성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정책 구현과 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충북의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정책 구현과 이에 따른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및 조직적, 인적 기반 마련의 노력이 필요함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에서 명시된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문적인 문화다양성 사업의 기획자, 운영자, 매개자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의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4. 소수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필요

문화다양성 사업 대상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특정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치 확산이라는 목표 관점에서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사업 실행이 효과적일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충북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은 소수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음. 충북 지역 장애인은 전체 충북 인구의 6%로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소수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중 있는 소수집단임. 문화예술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방식과 문화적 표현의 형태로 그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소수집단에 대한 감수성 제고와 충북지역 예술 다양성 확대 및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문화예술향유의 관점에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한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은 소수집단에 대한 문화적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의 실천 방안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와 같은 소수집단 대상 사업 발굴 및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5.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유기적 협업 필요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북문화재단의 중추적 역할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타 권역, 충청권 내, 또한 충북 지역 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유기적 협력이 필요함. 유기적 협업 체계는 공공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및 민간의 기업 또는 유관단체까지 확장 적용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공공과 민간 영역과 지역적 범주를 넘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은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집단)의 상호보완적 협업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도민의 문화적 다양성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

03



2022

충북 무지개다리사업 부록
- 충북 문화다양성 실태 조사

03. 2022 충북 무지개다리사업 부록

충청북도조례 제 4098호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0.] [충청북도조례 제4098호, 2017.11.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충청북도 문화다양성위원회)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11조에 따른 지원
 4. 제12조에 따른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⑧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전문위원)

- ①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도지사는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3조(전문 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2.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역협력체 운영)

-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 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지역협력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 공간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권고 등)

도지사는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년 11월 2일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권리와 관련해 1966년의 두 국제 규약처럼 인권과 기본 자유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가 승인한 다른 국제 규약들을 유념하고,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서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와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꼭 필요하며, 또 모든 국가가 상호 지원과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고 명시한 바를 상기하며, 다른 여러 목적보다 특히, 유네스코는 문자와 이미지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유네스코 헌장 제1조도 상기하고,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제 규약 중 문화권 실천과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며,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 뿐 아니라 생활 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문화는 정체성, 사회 단결 및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대한 현행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 믿고 이해하며 문화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문화 다양성의 인식, 인류 화합에 대한 자각 및 문화간 교류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연대를 소망하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세계화 과정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문화와 문명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유엔체제 중에서 유네스코에 부여된, 문화 다양성을 알차게 하고 진흥하며 보호할 특별한 임무를 인식해, 다음 원칙들을 공포하고, 이 선언문을 채택한다.

정체성, 다양성 그리고 다원주의

제1조 문화 다양성: 인류의 공동 유산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혁신·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조 문화 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

시민 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명백한 정책 표현이다. 민주 체제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제3조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발전을 위한 근간중에 하나인 문화 다양성을, 단지 경제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지적·감성적·윤리적·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인권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다양성을 이용할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화 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의 문화권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뺄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다. 창의적 다양성이 번성하려면 세계인권선언 제 27조와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문화권을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게끔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이를 위한 문화 다양성

문자와 이미지로 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문화가 자신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매체 다원주의; 다언어주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예술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표현과 배포를 위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가능성은 문화 다양성을 위한 보장이다.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

제7조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 유산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풍성해 진다. 이이유로 모든 유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고양하며 인간의 경험과 염원의 기록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진작하고 진정한 문화간 대화를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제8조 특정한 유형으로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오늘날 창조와 혁신의 거대한 가능성을 연 경제와 기술의 변화 시기를 맞아; 작가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인식; 정체성, 가치, 의미의 척도로서,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에 비추 창작품 공급의 다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9조 창의성의 촉매로서의 문화정책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문화 정책은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강력한 수단인 문화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배포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각 국가는 국제적인 의무를 지키며, 운영적 지원이든 적절한 규제든 적합한 수단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국제연대

제10조 세계적 창조와 배포를 위한 역량 강화

현재 세계 차원에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유통의 불균형에 직면해, 모든 국가 특히,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국내·외적으로 생존력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11조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시민 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에 핵심인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시장 기능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분야와 시민 사회와 협력을 통한 공공 정책을 강조해야 한다.

제12조 유네스코의 역할

유네스코는 회원국에게서 받은 위임과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

- (a) 여러 정부간 기구의 발전 전략에 이 선언문이 표명한 기본 원칙을 적용하도록 촉진한다.
- (b) 문화 다양성을 위한 개념과 목표, 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국제 정부간·비정부간 기구·시민·사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판단 기준과 토론장을 제공한다.
- (c) 능력이 닿는 한, 이 다양성 선언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준 설정·인식 제고·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구한다.
- (d) 이 선언문에 첨부된 주요 행동 계획의 실천을 촉진한다.

<첨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의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을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특히, 아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절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국제법적 기회를 명백히 고려하고 특히, 국가 그리고 국제차원에서 발전과 정책 수립의 효과에 대한 연관성을 존중하는 맥락에서 문화 다양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심화시키며,
- 2. 문화 다양성 증진과 보호에 상당히 기여하는 인식 증진 모델 및 협력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개념과 아울러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의 기본 원칙, 기준, 실천의 개념을 향상하며,
- 3.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의 참여와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지식과 실천의 교류를 강화하며,
- 4. 인권의 핵심 부분으로서 문화권 내용을 이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 5. 인류의 언어 유산을 보호하고, 가능한 다양한 언어의 표현·창조·배포를 지원하며,
- 6. 가능한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 모국어를 존중하고 - 언어 다양성을 촉진하고, 유년기부터 여러 언어를 학습하도록 장려하며,
- 7.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긍정적 가치 인식을 증진하고, 이런 목적에서 교과과정 구성과 교사교육을 향상하며,
- 8. 지식의 소통과 전달을 위해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보호하고, 충분히 활용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전통적 교육 방법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도록 하며,
- 9. 교육 훈련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교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 도구로서 컴퓨터 사용법(digital literacy)을 알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 10.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언어 다양성을 증진하고, 개방된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 11. 관련 유엔 체제와 긴밀히 협조해 발전도상국가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이 정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우며, 자생적 문화 상품을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보급하고 발전도상국이 전 세계 교육·문화·과학 정보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 12. 매체와 지구적 정보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보호·보급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위해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가 양질의 시청각 상품 개발에 기여하도록 특히, 이러한 상품을 배포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수립하도록 육성하며,
- 13. 특히, 구전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적, 자연적 유산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불법 유통을 퇴치하며,
- 14. 전통 지식 특히,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또 환경 보호와 자연 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전통 지식의 공헌을 인정하고, 현대 과학과 지역 지식의 상승 작용을 촉진하며,
- 15. 창작자·예술가·연구자·과학자·지식인들의 활동성과 국제 연구 프로그램 및 협력 관계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창의적 역량을 보존, 확장하도록 노력하며,
- 16. 현대적 창의성의 개발과 창의적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확보하고, 동시에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 따라 문화를 누릴 공공의 권리를 지지하며,
- 17.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문화 산업의 출현 혹은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간 설비와 기술 개발에 협력하며, 생존력 있는 지역 시장의 출현을 육성하고, 이러한 국가들의 문화 상품이 세계 시장과 국제 유통 네트워크에 배포되도록 도우며,
- 18. 이 선언문에 담겨진 원리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운영 지원 협정 그리고/혹은 적절한 규정 체제를 각 국가에 부과된 국제적 의무에 합당하도록 개발하며,
- 19.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민 사회를 적극 참여케 하며,
- 20. 민간 부문이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촉진하며, 이를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간의 대화 창구를 수립한다.

회원국은 이 행동 계획에 설정된 목적을, 유네스코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고려할 것과 문화 다양성을 위한 상승효과를 확대하려는 시각을 갖고 유엔 기구, 기타 다른 정부간 단체, 비정부단체와 협조할 것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권고한다.

